

미국의 부로일러 사육경향

미국에 있어서는 항생물질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쓰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매우 강하다. 특히 도살전에는 항생물질이 들어 있지 않는 사료를 쓴다.

항생물질은 육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보다 빨리 사료로부터 제거하며 더욱이 모든 사료 첨가제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강렬하며 장차 모든 첨가제는 닭이 도체되기전에 제거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생각된다.

항생물질 또는 사료첨가제를 빨리 제거하는데서 나타나는 체중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암수를 갈라서 사육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분리 사육함으로써 수병아리의 경우는 빠른 시일에 항생물질이나 사료 첨가제를 제거하고도 균일한 규격의 닭을 낼 수 있으며 암병아리의 경우는 좀더 사료첨가제를 급여하는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이다. 항생물질 사료첨가제의 금지문제는 앞으로 더욱 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해가 거듭될 수록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미국내에서의 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하나로 칼러 섹스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 된다고 생각되어 진다.

물론 칼러 섹스를 개발한 이유는 이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다.

첫째 : 닭의 규격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암수의 분리 사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옹추는 빨리 키워지고 자추는 좀더 키워 모두 균일한 규격으로써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출하할 수 있다. 좋은 예가 후라이드 치킨인데 꼭 같은 규격품만으로 하나 하나 저울로 다루지 않고 개수로 팔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 사료의 영양면으로 볼때 옹추는 에너지가 높은 사료가 빨리자라며 자추는 저(低)에너지 저단백의 사료로써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 보다더 처리장이 자동화된다면 아무래도 균일한 규격의 생산품이 아니면 손질이 까다로와 진다. 때문에 자동분리사육을 하므로써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하여 자동화하는 처리과정에 부응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요식업소, 식당등의 수요로 작은 것을 요구 하는곳과 크게키운 것으로 부터의 정육을 요구할때나 해체하여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도 분리사육이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어느정도 자동분리 사육이 보급되어 있는가

미국에 있어서는 장차 거의가 다 분리 사육이 되지 않나 본다.

현재는 약 40%이상이 분리 사육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모감별, 향문감별등 모두들 합한 것이며 앞으로 분리 사육경향은 더 늘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즉 사료가격이 오를 수록 어떻게 하면 사료를 절약할 것인가가 중요 과제로 되기 때문에 분리 사육의 이점을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지난 10월 미국의 코부회사 부사장 로바드, 후랜클린씨가 어떤모임에서 미국의 부로일러 사육 경향에 대하여 이야기한 부분을 초록한 것이다.



美 75 會計年度 農產物輸出 25%감소예상

미국은 75회계년도에 공급량 제한으로 전년보다 농산물 수출이 2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무성 경제조사국이 밝혔다. 농무성은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이 올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은 74년 수준과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곡물수출이 가

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소련, 중공 및 서유럽이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소맥 수출국들의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수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옥수수생산이 크게 감소하므로써 75년의 사료곡물수출은 74년의 4,400만톤에서 2,100

만톤~2,700만톤으로 감소할 것 같다. 미국의 사료 곡물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선진국들의 축산물 생산도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미국의 콩 수출은 75회계년도에 1,400만톤으로 74년 수준보다 약간 증가할 전망이다. 74년도의 가축 및 축산물 수출도 각국의 우육 및 기타 육류제품 증가로 말미암아 감소할 전망이다.



닭의 개량은 어디까지?

지난번 미국의 아나햄에서 열린 7419년 태평양 가금 회의에서 화이자社 농업부의 R. M. 헛드릭스씨는 20~30년 이후 닭의 성능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전망을 밝혔다.

1. 장래의 산란계는 에어 휠터-가 불은 환경제어 계사등 고도의 사양환경의 개선과 SPF 계의 도입,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예방등에 의하여 12개월간에 300~325개의 산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량될 것이다. 계란의 크기는 크게도 작게도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며 판매 방법은 금후도 그다지 많은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1년간에 365개를 낳는 것이 닭의 산란생리로 보아 한계(限界)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늘날 이미 300개 가까이까지 산란을 하고 있지만 금후는 인위적인 광선 관리 방법의 개선으로 1년간에 365일 이상의 날(日)을 닭에게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편 육종방식에 의하여 그날 그날마다 1개씩의 계란을 낳게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난각(卵殼)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파란을 보다 적게 하기 위하여 모든 육종면에서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며

3. 계군의 폐사율은 장차 더욱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 산란개시까지의 육성기간중은 약 2%의 폐사율, 산란기에 들어서는 월평균 1/4~1/2% 정도의 폐사율로 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산란전기간의 생존율은 95%정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성숙시 체중은 3~3.25파운드(1,360~1470그램) 정도로 소형화가 추진 될 것이다.

부로일러는

증체량의 개량은 더욱 추진된다.

그 전망으로써는 6주령에 약 4파운드 (약 800그램)의 체중에 도달 하지 않겠나 본다

부로일러는 발육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각약(脚弱)이나 흉부수종(胸部水腫)이 생기고 그위에 우모(羽毛)의 발육이 늦어지기 쉬운데 육종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노력이 경주될 것으로 본다.

가금은 모든 가족중에서도 사료원을 동물단백으로 바꾸는데 가장 효율이 좋은 것임에는 틀림 없으나 지금까지 기술한것과 같이 미래의 닭은 오늘의 계종에 더욱 개량을 가하던가 아니면 전혀 새로운 다른 어떤 닭을 만들어 내던가 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EEC 小麥 飼料化 傾向

小麥이 옥수수 보다 싸

EEC 美農務官 Piewe Lardinois씨는 EEC의 사료곡물 공급사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프랑스의 금년 곡물수확이 작년의 868만톤 보다 18% 감소한 714만톤으로 예상되었으나 늦여름과 초가을의 날씨가 나빠 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이는데다 옥수수 가격이 소맥 가격보다 비싸 소맥이 사료로 이용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의하면 EEC의 소맥가격은 톤당 153달

러인데 비해 EEC산 옥수수는 톤당 162달러, 미국에서 수입한 옥수수는 170달러에 이르고 있다. EEC는 域內 옥수수 생산감소와 소맥과 옥수수가격의 차이로 소맥 수출을 줄이고 이를 사료로 이용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EEC는 豚肉, 계란, 鷄肉 등 사료곡물 소비를 전제로 하는 肉類 및 酪農品 생산촉진정책을 재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EEC는 현재 牛肉輸入을 禁止하고 있다.

대만 豚糞을 飼料化

대만의 지역건설위원회와 가축과학자들은 3년간의 공동실험끝에 돼치똥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될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사료비가 종전의 절반정도 밖에 들지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돼치똥이 사료로 사용될 경우 가축의 건강과 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당국은 모든 농촌에 이를 보급시킬 방침이라 한다.